

인간의 동반자

개(犬)

영명 : Canine

일명 : inu (イヌ)



김 성 수

야생동물 전문 수의사/수의학 박사

‘멍멍’ 멍멍’ ... 2006년(丙戌年)은 십이지(十二支)중 11번째 되는 개띠해이다.

개과(犬科) 동물은 약 4천만년전에 곰류와는 다른 진화의 과정을 겪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개(犬)를 기르기 시작하였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학자에 따르면 기원전 3천년전 쯤으로 알려졌다.

개(犬)의 조상은 여우(狐)라



고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개(犬)와 가장 가까운 동물은 늑대, 코요테, 여우, 검은등작칼, 리카온, 너구리 등이 있고 가축화 된 소, 돼지,

닭 보다는 개(犬)가 가장 오래전부터 우리들 가정에 들어와 인간과 친하게 지내 왔다.

인간은 사나운 개(猛犬)를 두려워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깊은 애정을 느끼고 요즈음은 개(犬)없이는 못 살겠다는 사람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인간이 개(犬)를 기르게 된 순서는 단순히 인간으로부터 사육되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과 개(犬)와의 애정으로부터 진보 되어온 것이며 인간은 원래 동물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어서 인간과 개(犬)와의 사이에는 어느덧 보이지 않는 끈끈한 애정의 끈으로 연결고리가 단단하게 만들어졌다.



개(犬)가 인간과 관계를 맺을 때는 충직하고 의리를 지키며 매우 희생적이다.

‘개(犬)는 사흘만 기르면 주인(보호자)을 알아본다’거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보다 은혜를 아는 개(犬)가 더 낫다’, ‘개(犬)만도 못한 O’ 등등의 속담이 있을 만큼 개(犬)를 영물(靈物)로 여겨왔다.

개(犬)의 이용방법에 따라 목양견(牧養犬), 썰매견, 군용견, 경찰견, 사냥견(狩獵犬), 맹인 인도견(盲人引導犬), 쇼우견(Show犬), 잡견(雜犬), 애완견(愛玩犬)등으로 분류한다.

개(犬)의 신체는 두부(頭部), 경부(頸部), 동부(胴部) 또는 전구(前軀), 중구(中軀), 후구(後

軀)로 나눈다.

충성심이 뛰어나고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전라남도 진도의 진돗개, 긴털로 눈(目)을 가린 제368호인 경상북도 경산시의 삽살개, 호랑이도 잡는다는 북한(함경남도 풍산군 광덕면)의 천연기념물 제282호인 풍산개가 우리 한반도의 대표적인 개(犬)이다.

조선시대의 이태조(李太祖)가 한양(漢陽)으로 천도(遷都)하고 서울을 조선왕조의 도읍으로 삼은 것이 지금으로부터 612년전(甲戌年) 개띠해였고, 2006년(丙戌年) 개띠해에 충청남도의 공주와 연기로 행정도시가 이전할 기초를 다진다는 것이 우연만은 아닌 듯 하다.

1993년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산재해 있는 각종 개(犬)의 종류는 220종 200여만 마리였으나 12년이 지난 2006년에는 300여만 마리가 되어 3가구중에 1마리정도 인간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며 2020년이 되면 집집마다 1마리 이상의 개(犬)를 길러 반려동물(伴侶動物)이면서, 보다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리라고 본다.

개(犬)를 비롯한 애완동물을 사랑합니다. 양계

* 필자 연락처 : 017-285-7581

“

개(犬)는 충성심이 뛰어나고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전라남도 진도의 진돗개, 긴털로 눈(目)을 가린 제368호인 경상북도 경산시의 삽살개, 호랑이도 잡는다는 북한(함경남도 풍산군 광덕면)의 천연기념물 제282호인 풍산개가 우리 한반도의 대표적인 개(犬)이다.

”